

18호, 2019년 11월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서울숲 컨서번시

서울숲 현장스케치

서울숲 가을페스티벌

서울숲 갤러리 [작품명 : 서울숲]

서울숲 챌린지가든 오픈파티 리뷰

서울숲 다시보기

숲에서 만드는 퇴비 프로그램 리뷰_돌고 도는 서울숲

서울숲 단신

서울숲 가을페스티벌_4컷 동화 공모전 당선작 발표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찬 바람이 살짝 불기 시작한 가을날, 구름도 없는 너무나 청명한 날씨 속에 서울숲에서 가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서울숲 가을페스티벌은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서울숲의 가장 오래된 축제입니다. 그리고 14번째의 서울숲 가을페스티벌은 [작품명 : 서울숲]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계절이자 공원이 특별히 더 예뻐지는 계절이기도 한 가을, 예뻐진 서울숲 전체를 거대한 갤러리 삼아 예술작품처럼 풍경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만큼은 겸손을 잠시 내려놓고, 더 전시하듯이, 공간도 프로그램도 서울숲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이도록 하는 축제로 만들어보았지요.

이틀간의 이번 축제 기간 중 약 8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즐겨주셨습니다.

관람과 인증샷을 남기는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그 외에 중앙호수 준설공사로 인해 물이 빠진 겨울 연못에 황화 코스모스 화분 13,000여 개를 채워 '작품명 : 노을연못'이라는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기도 했지요. 노을연못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녀 복장을 빌려 입고 어린이 정원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 우푸푸 인형 탈을 쓴 캐릭터와 함께 설렘정원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숲 갤러리 작품 12선 + 노을연못 [작품명: 서울숲]



[작품명 : 000]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서울숲 갤러리는 대표적인 가을풍경 명소 12군데를 선정해 포토존을 꾸며

도슨트와 함께 서울숲 관람 [도슨트투어]

서울숲이 갤러리라면 전시된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좋겠죠?

서울숲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도슨트가 되어서 서울숲 갤러리를 관람하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숲을 투어하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군마상에서 출발해 사색의 길, 가을타는 벤치 등을 거쳐 마지막에는 향기정원에서 시원한 허브티를 마시며 마무리를

하였지요. 이번 투어를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서울숲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도 알아보고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틀간 총 여덟 번의 도슨트 투어가 진행되었고 50여 명의 방문객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미니퍼레이드와 낭만적인 버스킹 공연의 [음향관]



신나는 고적대와 함께 어린이들의 귀여운 퍼레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12일에는 꽃처럼 예쁘게 꾸미고 나타난 어린이들이 고적대와 함께 신나게 공원을 걸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지요. 13일에는 마칭밴드의 공연과 함께 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음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숲의 대표적인 가을명소, 은행나무숲에서는 양일간 총 여섯 번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밴드 '잔디프로젝트'가 어쿠스틱 어반 재즈 공연으로 서울숲의 분위기를 한층 로맨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공원을 찾은 많은 연인들이 모여들어 사랑이 넘치는 은행나무숲을 만들어 주었지요.

식물의 위로 저자 & 곰돌이 푸우를 만난 [영상관]

도시락정원 옆 살구나무길에 꾸며진 영상관에서는 반려식물을 기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식물의 위로' 저자 박원순 작가와의 대화 시간과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영화 상영 및 팝콘 나눔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늦은 저녁까지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으면서 축제를 즐겨주셨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 [메이드인서울숲]

서울숲의 동물들을 모티브로 즉석에서 동화를 그려보는 '4컷 동화' 공모전은 당일 부스에서 선착순 텀블러 증정, 당선작 엽서 제작 및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마지막페이지 당선작 발표)

당선작 5개 작품 외에 모두 소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동화를 그려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공원의 나무를 입양해 기르는 게임을 소개하고 선물도 증정하는 아이트리, 참여하면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리는 만족도 조사 등 재미있는 이야기와 선물이 오간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획된 서울숲 환경 캠페인 부스는 환경 선서, O/X 퀴즈, 분리수거 게임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부스이기도 했지요. 게임을 다 마치면 룰렛을 돌려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는 뜻깊고 훈훈한 행사였습니다.



이번 2019 서울숲 가을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으로 축제를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남은 가을, 예쁜 서울숲을 계속해서 즐겨주세요.

서울숲 가을페스티벌은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숲 가드닝워크샵 심화반 '챌린지가든' 오픈 파티 기동정원은 '정원'이 되고, 정원사는 '정원사'가 된다.



10월 20일, 햇살은 따스하고 공기는 선선한 완벽한 가을날, 습지생태원 논습지 옆 기동정원에서 챌린지가든 오픈파티가 열렸습니다.

챌린지가든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 팀이 직접 기동정원 내 일정 사이트에 팝업가든 형태의 정원을 꾸며보는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원을 소개하는 오늘의 오픈파티까지 열정적으로 달려온 두 달이었습니다. 이번 챌린지가든은 내대지와 다른없던 기동정원을 창의적인 기획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진짜 '정원'으로 탄생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참여한 초보 정원사들에게는 진짜 '정원사'로서 스스로의 역량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한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숲길 자연정원

기본 컨셉은 작은 숲길을 만드는 것이다. 가을 국화, 구절초, 그라스 등 가을에 어울리는 식물들을 식재했다. 그루터기 나무를 하나 가져다 놔는데 짧은 하지만 길을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지 말고 걸터앉아 정원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원래부터 사람이 손댄 게 아닌 최대한 자연적인 상태처럼 보이는 정원을 원했고 대체로 기획대로 된 것 같다. 처음 계획과 좀 달랐던 건, 이쪽이 습지이고 습하다 보니까 단차를 만들려고 땅을 판 데에 자꾸 물이 조금씩 고인다는 거였다. 임기응변으로 서울숲 사슴사 쪽에서 나무껍질을 얻어와 길에 깔았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더 잘된 것 같다. 더 좋은 느낌이 됐다.

수다쟁이 기둥

수다쟁이 기둥인데 전에 보니 수다쟁이 가든으로 적어 주셨더라. 수다쟁이 정원이 아니라 수다쟁이 '기둥'이다. 정원의 가장 큰 이미지를 기둥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기획한 거다. 기둥을 중심으로 두고 그 주변 식물들은 색이나 크기 등이 기둥을 받쳐주는 느낌으로 디자인해 식재했다.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원이길 바랐다. 기둥에서 손이 나오는 것, 그 손의 손짓으로 기둥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시작부터가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선정이 되자마자 좋기도 했지만 정말 심란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한 많은 공부와 도움이 됐다. 이걸 만들면서 '이 길을 가야겠구나.' 생각하게 됐다.



냥이의 정원 산책(도시정원사 4기)

2018년 봄, 서울숲 도시정원사 과정을 수료한 팀이다. 아직은 초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번 일은 함께하는 도전이었다.

정원을 산책하는 고양이로 컨셉을 잡은 건 서울숲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 자체로 보고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함께 주인공이 되는 정원을 만들어봤다. 우리도 서로 도와가며 이 정원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함께 한 정원사 중 미술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고양이 일러스트를 멋지게 그려 넣을 수 있었다. 하나하나 보면 서울숲에 실제로 사는 고양이들이다.

한 가지 당부가 있다면, 고양이 그림을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TT) 고양이 그림이 이미 하나 없어졌는데 함께 볼 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좋겠다.

이번 오픈파티는 서울숲을 찾은 시민분들도 초대 해서 함께 즐기는 파티로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다과도 함께 나누고, 예쁜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준비한 굿즈도 가져가셨지요. 앞으로의 기둥정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가며 들르는 따뜻한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사의 도전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전을 완수해주신 세 팀의 정원사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숲에서 만드는 퇴비 프로그램 리뷰] 돌고 도는 서울숲

글.사진 서울숲기자단 김주선

서울숲에서는 서울숲 내의 부산물을 통해 만든 퇴비를 다시 서울숲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떨어진 낙엽, 나뭇가지, 동네 카페에서 소비된 커피 찌꺼기, 서울숲에서 살고 있는 토끼똥, 사슴똥 등을 활용해서 서울숲에 직접 사용할 퇴비를 제작해 보는 <숲에서 만드는 퇴비> 프로그램이 지난 10월 12일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직접 퇴비를 만들기에 앞서서 퇴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OX 퀴즈로 퇴비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숲 꿀벌정원 옆에 위치한 퇴비정원

퇴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퇴비를 만들어 보러 퇴비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낙엽과 잡초를 모아와서, EM용액을 섞고 위의 드럼통에 넣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퇴비를 만든 후에는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둔 퇴비를 보러 퇴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퇴비가 다 완성이 되면, 체에 한 번 걸러 고운 퇴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숲에서 만들어져 다시 서울숲에서 사용되는 퇴비, 우리 모두의 손길로 만들어가는 서울숲입니다!

서울숲 퇴비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4컷 동화 공모전 선정작 발표



서울숲 가을페스티벌 4컷동화 공모전은 시민들이 직접 서울숲을 배경으로 한 동화의 작가가 되어 봄으로써 내가 그린 캐릭터가 살고 있는 장소가 1년 뒤 10년 뒤에도 잘 유지되고 조화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심사를 거쳐 당선된 4컷동화는 엽서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작가상

서울숲에 사는 '맹꽁'

김은미

★ 심사위원 한줄평

맹꽁이를 소재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숲에 있는 맹꽁이를 소재로 사람들에게 맹꽁이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 좋다.

생태적인 내용이 좋다.

우수 작가상 1

서울숲에 사는 '토끼'

안재희

★ 심사위원 한줄평

뚜렷한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이 인상 깊음

우수 작가상 2

서울숲에 사는 '달팽이와 도토리'

김형기

★ 심사위원 한줄평

느린달팽이 숲여행이라는 참신한 소재

다음편 공망상

서울숲에 사는 '유령의 집'

김보라

★ 심사위원 한줄평

그림이 멋지고 다음편이 기대된다

Reri 화가상

서울숲에 사는 '민들레'

이승범

★ 심사위원 한줄평

조그만 민들레를 소재로 서울숲을 지키는 참신한 소재



• 서울숲X푸르지오 장미빛정원 •

일시 19.10.05 ~ 20. 2.
일몰시점 ~ 자정

장소 서울숲 군마상 일대

내용 화려한 장미빛 라이팅 소
장미 정원이 한 눈에 보이는
메인 입구에 포토존 설치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 서울숲 스스로 가이드북투어 •

일시 상시. 현장 신청 후 진행

장소 방문자센터 (등록 및 관찰
키트 대여)

참가비 무료

내용 서울숲에서 나 혼자 투어를
할 수 있는 관찰 키트, 가이
드북 제공(루페, 펜, 곤충경,
셀프가이드북)

문의 02-460-2905, 서울숲.kr



• 사육사가 들려주는 꽃사슴 이야기 •

일시 11월 중 매주 목요일
14:00~15:00

장소 서울숲 곤충식물원 앞

대상 누구나 회당 20명

참가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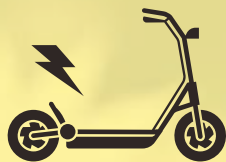
내용 서울숲 사육사가 들려주는
서울숲 토끼와 사슴이야기

문의 02-460-2925, 서울숲.kr

전동 킥보드, 휠 등
모든 전동 탈것은
공원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이용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서울숲공원 내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안내

서울숲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무장애 친화공원을 조성합니다.

공사기간 중 숲속놀이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기간 : 2019. 10. 10. ~ 11. 30.